

22대 국회의원 선거



장애 용어, 바르게 사용합시다!

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
"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
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"

✓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한 장애인 관련 발언이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확산

- 👉 정치인들이 부적절한 '장애비하 발언'을 지속하는 상황. 이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
- 👉 서로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자들의 절실한 노력이 필수적임

✓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유세 시,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
- 👉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시행 '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'에 따르면 "정치인, 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"가 90.3%을 차지
- 👉 따라서,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차별과 혐오 문제 해소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형성을 위해 주의해야 할 장애 관련 부적절한 표현을 살펴보고 올바른 표현 제시

✓ 장애 관련 표현 시 주의하세요!

-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지양합니다.
- 장애에 관련된 용어는 정확히 사용합니다.
- 장애는 유형마다,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시하지 않습니다.
- 장애인 차별 발언은 무의식 중에 나오니 평소에 주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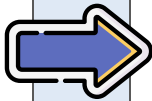
22대 국회의원 선거



장애 용어, 바르게 사용합시다!

✓ 장애 관련 바른 표현

내용	바른 표현
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<u>꿀먹은 병어리</u> 상태	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<u>일언반구도 없는</u> 상태
감독 나가신 분들이 <u>눈 뜬 장님</u> 이었는지	감독 나가신 분들이 <u>잘 모르셨는지</u>
거짓말만 앞세우는 <u>외눈박이</u> 공세	거짓말만 앞세우는 <u>편파적인</u> 공세
<u>절름발이</u> 최고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	<u>불균형적인</u> 최고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
권력에 <u>눈 먼</u> 자들이 제 구실 못 해	권력만을 <u>쫓는</u> 자들은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해
<u>시각장애를 앓고</u> 있는 사람	<u>시각장애를 갖고</u> 있는 사람



✓ 장애 차별용어 사용 시 이렇게 사과합니다!

첫째, 진정성을 가지고 즉시 사과합니다.
 둘째,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합니다.
 셋째,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합니다.
 넷째, 제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지킵니다.